



# 증권업무의 토틀컴퓨터 시스템 구축

「인화협동, 천직성실  
직무전문가, 창의개발」을  
社혜으로



▲張泰玩사장

**88년** 10월 51억원의 증자로 자본금을 68억원으로 확대, 증권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첨단 전산 서비스의 개발 및 증권계 전산망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KOSCOM: Korea Securities Computer Corp.)

KOSCOM의 발족은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 즉 지난 70년대 들어 본국에도 오르기 시작한 증권시장은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증권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KOSCOM은 증권거래소의 1억원 전액출자로 77년 9월 설립, 증권업계 공동의 전산회사로 출범하였다.

창립 이후 KOSCOM이 증권전산화에 기울인 노력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78년 4월 증권거래소로부터 IB-

M시스템 3과 배치터미널 인수, 78년 9월 10개 증권회사의 업무 전산화, 79년 7월 증권시세계시온라인시스템 가동, 80년 8월 증권정보문의 온라인시스템 가동, 83년 2월 증권공동 온라인시스템 가동, 84년 12월 기술용역업 등록(과학기술처), 85년 6월 증권종합정보문의 온라인 시스템 가동, 85년 6월 정보통신업무제공 승인(체신부), 85년 11월 영업점 주가TV 온라인시스템 가동, 87년 7월 금융전산망 중 증권망 추진의 전담사업자로 지정, 88년 1월 증권매매체결 온라인시스템 가동 등.

현재 KOSCOM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증권공동 온라인시스템, 증권매매체결시스템, 증권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대별된다.

증권공동 온라인시스템은 83년 2월부터 서비스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체 증권회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KOSCOM에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는 증권업무의 종합사무관리시스템이다. 이는 모든 증권투자 고객의 계좌관리를 비롯하여 주문과 체결의 전달, 현금의 입출금, 증권의 입출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증권저축업무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증권회사의 유가증권관리, 상품관리, 신용관리업무들이 자동 처리되어 증권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부문이 KOSCOM 매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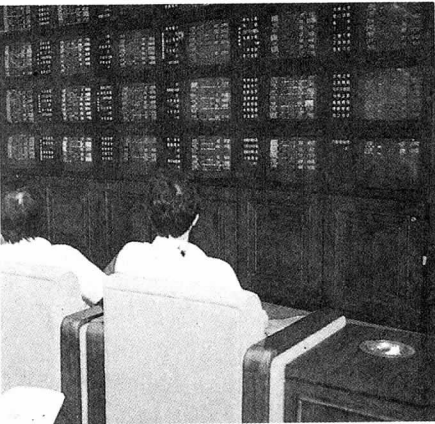
증권매매체결시스템은 85년 1월 개발에 착수, 3년만인 작년 1월 가동된 시스템으로 작년에는 가동률이 5~6%에 머물렀으나 금년에는 장애율 감소를 통해 가동률을 5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는 매매체결의 신속 정확한 처리, 증권시장 규모확대에의 유연한 대응, 매매체결의 공정성 제고, 빠른 정보제공에 의한 증권투자자의욕 진작, 전체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로써 증권 투자고객이 증권회사의 영업점에 매매주문을 의뢰하면 이 주문을 증권거래소의 매매입회장에 전달하고, 사고자 하는 주문과 팔고자 하는 주문을 적정하게 체결시키며,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의 가격정보가 전국에 공평하게 서비스돼 증권업무처리의 전과정이 완벽하게 서비스되는 토틀컴퓨터시스템이 실현되었으며, 주문에 대한 체결결과를 확인하는 소요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매매입회장 시세계시시스템은 증권거래소 매매입회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전체주식의 가격을 전자시세





▲ 증권회사 객장에 설치된 영업점 주가통보 온라인시스템

게시장치에 나타난 것으로 증권전산은 79년 부족한 기술인력과 개발경험을 증권업무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굳은 사명감으로 극복하고 완성,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인 운용이 계속되고 있어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증권정보 서비스시스템은 증권정보문의·종합정보문의·영업점 주가통보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정보문의시스템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증권시장의 시황정보와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증권투자와 관련된 공시사항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단말기를 통하여 최신의 증권정보를 즉시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80년부터 온라인 DB서비스

로 가동을 시작, 현재 전국의 단말기로부터 하루 100만건 이상의 문의가 처리되고 있으며, 정보는 23종류에 약 4,000 화면으로 증권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기업의 증권관리부서에서도 단말기를 통해 증권정보를 서비스 받고 있다.

종합정보문의시스템은 증권투자에 필요한 각종정보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투자분석정보, 기업의 재무 상황과 성장성의 분석을 행하는 기업정보, 채권정보 그리고 금융경제정보로 구분되며, 최신의 컬러 그래픽 단말기를 통해 150종류, 25,000여 화면을 서비스하고 있다.

영업점 주가통보시스템은 증권회사 영업점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시계게시 장치를 통해 주식의 시세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TV 수상기를 이용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증권회사 250여 객장에 설치, 서비스되고 있다.

「증권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은 본인의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며, 증권업계 전산의 산 증인임을 자부하는朴良祖 상무는「한 나라 전체를 망라하는 증권 토틀 컴퓨터시스템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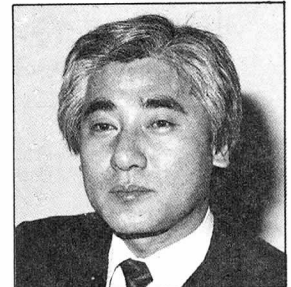
또한 2000년대를 대비, 증권업무의 공동 전산화, 증권전산망의 전담 및 전

산표준화, 증권데이터의 बैं크, 증권시장 운용관리의 전산화지원, 전산기술의 연구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형 증권사로 하여금 자체개발 분위기 관계 설정을 유도하고, 후발 전산 미보유회사는 전산기 도입을 후원하는 등 각 기업의 위상정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KOSCOM의 발전계획을 밝혔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는 UNISYS 대형 2대, TANDEM 20대, WANG 1대의 호스트컴퓨터를 주축으로 단말기, 모뎀, 각종 주변장치 관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은 300여명이며, 작년 매출액은 200억원, 금년 목표매출액은 300억원이다.

社訓은 「人和協同, 天職誠實, 職務專門家, 創意開發」이다.



▲ 한국 증권전산업무의 산 증인임을 자부하는 朴良祖 상무

